

이명기가 뛰면 KIA는 난다

4월 17경기 중 9경기 무안타... 팀 승률도 4할대 그쳐

이달 3안타 경기서 팀 6승1패 “아직 완벽하지 않아”



이명기가 뛰면 팀도 같이 된다.

KIA 타이거즈의 이명기는 지난 시즌 ‘굴러온 복덩이’였다.

SK 와이번스와의 트레이드로 KIA 유니폼을 입은 이명기는 ‘깜짝 활약’을 하며 우승 행진에 큰 힘을 보탤었다.

‘1위 팀의 1번 타자’라는 자부심을 이야기하면서 야구 인생의 최고의 한 해를 보냈던 이명기였다. 하지만 새로운 시즌을 보내는 이명기의 마음이 편치는 않았다.

공식적인 스프링캠프에 앞서 오키나와에 ‘자체 캠프’를 차리면서 일찍 몸을 만들었고, 캠프에서도 ‘발사각’에 신경을 쓰면서 2018시즌의 각오를 다졌다. 준비는 잘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했다.

이명기는 3월 7경기에서 0.321의 타율을 기록하면서 나쁘지 않은 성적표를 작성했지만, 중요한 순간의 승부가 아쉬웠다. 삼진도 6개를 기록했다.

4월 모습은 더 좋지 못했다. 4월 한 달 타율은 0.229에 머물렀다. 홈런은 하나, 타점은 7. 무엇보다 소득 없이 돌아선 날도 많았다. 선발로 나온 17경기에서 무안타로 물러난 경우가 9차례 이를 정도로 이명기의 ‘꾸준함’이 사라졌다.

지난 시즌 공격을 열어주던 이명기가 주춤하자 KIA의 공격에도 빨간불이 들어왔다. 타선의 폭발력이 떨어진 KIA의 4월

성적은 9승 12패였다.

기록을 보이던 이명기의 방망이가 최근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5월 17경기에서 이명기는 66타수 26안타로 0.394의 타율을 기록했다. ‘1번 타자’ 임무도 다시 맡았다.

지난 18일 SK 홈경기서 토타자로 나선 이명기는 첫날 무안타에 그쳤지만, 19일 경기에서 친정팀을 상대로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SK전에 대한 부담을 덜어냈다. 이후 이를 연속 3안타를 터트리는 등 연승의 중심에 섰다.

이명기가 움직이면 KIA의 공격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올 시즌 이명기가 3안타를 만든 7경기에서 팀은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슬럼프에서 벗어난 분위기지만 이명기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

이명기는 “다른 선수들이 잘 하고 있는데 나만 못하고 있으니, 내 역할을 하는 날 팀 성적이 잘 나오는데, 내가 공격을 이끄는 것은 아니다(웃음)”며 “내가 덜 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완벽한 타격을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타이밍이다.

이명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중심에 완벽하게 맞지 않고 있다. 타이밍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타순은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 이날마다 주어진 타석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의 1번타자 이명기가 움직이면 팀의 공격에도 불이 붙는 모양새다. 올 시즌 이명기가 3안타를 만든 7경기에서 팀은 6승 1패를 기록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2승 한승혁 “와인드업 한 기억밖에 없어”

덕아웃 T 특특

▲봐 보세요. 안 좋다니까 = ‘일요일의 사나이’ 최형우의 고민은 ‘화요일’이다. 최형우는 올 시즌 일요일 8경기에서 타율 0.531(32타수 17안타) 4홈런 12타점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일요일 SK전서 투런 포함 4타점을 올렸고, 앞선 일요일 대구 원정에서는 시즌 첫 멀티홈런으로 승리의 주인공이 됐다. 하지만 일요일의 분위기를 잊지 못한다는 게 최형우의 큰 고민이다. 지난 20일 경기가 끝난 뒤 “내가 느낄 정도로 일요일에 좋다. 하지만 쉬고 나오면 흐름이 끊긴다. 화요일부터 좋아서 쪽 상생세를 타고 가야 하는데 큰일이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화요일이었던 22일 kt전서 최형우는 자신의 우러대로 4타수 무안타에 그쳤다. 23일 경기를 준비하던 최형우는 “봐 보세요. 안 좋다니까”라면서 타격 훈련에 공을 들였다.

▲와인드업 한 기억밖에 없어요 = ‘위기를 타격’을 위해 초집중을 했던 한승혁이다. 한승혁은 지난 22일 kt전 선발로 나서 켈리타스타트(6타수 이상 3타점으로 막는 경우)를 기록하면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최근 두 경기 결과가 좋지 못했고, 윤석민이 복귀를 위해 시동을 건 만큼 한승혁에게는 ‘보여줘야 했던’ 경기. 다행히 변화구

제구 난조에도 매서운 직구를 앞세워 팀 승리를 이끌었다. 23일 한승혁은 “얼마나 집중했는지 어제 경기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는다. 와인드업한 것만 생각한다”고 웃었다. 경기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등판을 복기했다는 한승혁은 “직구가 괜찮았었다. 공이 들어가는 궤적을 중심으로 봤다”고 언급했다.

▲더 늦게 가도 되는데 = 최정민이 KIA 야수진의 새로운 활력소로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해 이명기, 김민식과 함께 SK에서 트레이드가 되어온 최정민은 부상 등의 여파로 지난해 8경기 출장에 그쳤다. 여기에 올 시즌 내야의 백업 자원으로 캠프에서 눈길을 끌었던 최정민은 지난해 이어 또다시 캠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출발이 늦어졌다. 때를 기다리고 있던 최정민은 외야수로도 변신해 최근 연승의 힘을 보탤었다. 친정팀을 상대로 프로 데뷔 홈런까지 터트리면서 타격 실력을 과시한 그는 성실함에서도 좋은 점수를 받는다. 김기태 감독은 23일 최정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열심히 잘 해주고 있다”며 “내가 늦게 되긴 하는 편인데 최근에 몇 번이 되곤 했다. 더 늦게 나가도 되는데”라고 웃었다. 김 감독의 웃음 뒤에는 늦게까지 훈련을 하고 가는 최정민을 향한 기특함이 담겨있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성폭행 혐의’ 넥센 선수 2명 활동 정지

KBO 사무국이 23일 성폭행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는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구단 소속 선수 2명에게 참가 활동정지 조치를 내렸다.

KBO 사무국은 야구규약 제152조 5항을 조처의 근거로 들었다.

152조 5항은 부정행위와 품위손상행위와 관련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품위손상행위자와 부정행위자의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참가활동정지는 23일 경기부터 즉각 적용되며, 해당 선수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소명될 때까지 일절 구단 활동(훈련·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도 받지 못한다.

KBO 사무국은 앞으로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정지 기간 연장과 제재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전 남동경정서는 성폭행 혐의로 넥센 구단 선수 2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오전 발표했다. 연합뉴스

기성용 A매치 100경기 출전 눈앞 “한국 월드컵 16강 진출확률 29.4%”

28일 온두라스전 뛰면 역대 세번째 어린 나이 대기록

축구대표팀 주장 기성용(스완지시티)이 역대 세 번째 어린 나이로 센추리 클럽에 가입한다.

대한축구협회는 23일 “기성용은 28일 대구에서 열리는 온두라스와 친선경기에 출전할 경우 A매치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다”며 관련 소식을 알렸다.

협회는 “하프타임에 기성용의 영문명 ‘키(Ki)’에 착안해 황금 열쇠(Key)를 축하선물로 증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성용은 만19세였던 2008년 9월 요르단과 친선경기에서 A매치 데뷔전을 치렀다. 이후 총 99경기를 뛰었는데, 이 중 94경기에서 선발로 나섰다. 풀타임은 60경기를 뛰었다.

기성용은 총 8006분을 뛰어 한 경기 평균 출전 시간 81분을 기록했다. 풀타임을 뛰지 못한 39경기 중 34경기는 교체 아웃됐으며, 5경기는 교체 출전했다.

기성용은 A매치에서 총 10골을 넣었다. 첫 골은 두 번째 A매치인 2008년 9월

10일 북한과 월드컵 최종예선에서 기록했다. 마지막 득점은 지난해 6월 카타르전에서 나왔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주 포지션인 기성용은 득점보다 어시스트를 더 많이 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그리스전에서 이정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이후 총 15개의 도움을 기록했다.

그는 오랫동안 대표팀 주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2014년 10월 파라과이와 친선경기 이후 4년째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선다. 주장으로 출전한 경기는 총 33차례다.

한편 역대 A매치 100경기 이상에 나선 선수는 차범근, 홍명보(이상 136경기) 등 총 13명이다.

가장 어린 나이에 100경기 출전을 달성한 선수는 차범근 전 감독으로 24세에 골자탕을 쌓았다. 김호곤 전 기술위원장은 26세에 100경기 출전 위업을 달성했다.

기성용은 29세 124일로 뒤를 잇게 됐다. 첫 골은 두 번째 A매치인 2008년 9월



FIFA WORLD CUP

미국 야후스포츠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2018 국제축구연맹(FIFA) 러시아 월드컵 16강 진출 확률을 29.4%로 분석했다.

야후스포츠는 23일 러시아월드컵 조별리그 F조에 속한 4개 팀을 분석하면서 한국 대표팀을 전망했다.

이 매체는 베타사이트 자료를 근거로 한국 대표팀의 16강 진출 가능성을 예상하면서 F조 1위 가능성은 5.9%, 월드컵 우승 가능성은 0.2%로 매겼다.

야후스포츠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한 팀”이라며 “이는 브라질, 독일, 아르헨티나, 스페인에 이어 5번째 기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강점은 공격력, 약점은 수비력으로 꼽았다.

야후스포츠는 “한국 축구대표팀은 월드컵 최종예선 원정 5경기에서 단 한 골만 기록할 정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지

만, 토트넘 손흥민과 기술적으로 우수한 미드필더 자원을 여러 명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수비력이 문제라며 “한국은 카타르와 두 경기에서 5골을 내졌고, 홈에서 치른 중국과의 경기에서도 2골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신태용 감독이 선택할 전술도 예상했다.

야후스포츠는 “한국은 4-4-2 전술을 들고나올 것”이라며 베스트 11을 꼽았다.

투톱으로 손흥민, 황희찬(잘츠부르크)을 예상했고, 미드필더엔 이재성(전북), 기성용(스완지시티), 박주호(울산), 권창훈(디종), 포백은 이용(전북), 김영권(광주), 장현수(FC도쿄), 김진수(전북), 골키퍼는 김재규(비셀 고베)가 출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부상으로 낙마한 권창훈의 이름이 포함된 것을 비춰보면, 한국축구대표팀의 현재 상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